

- 7 # 신문 기사(40대 여성 환병 가장 많다, 한겨레 89.9.6/중년 남성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, 동아일보 88.11.26/성고정 관념, 남성 삶도 억압, 한겨레 89.5/현대 남성 집계명5,6 여성신문 89.10.6.13/ 일하는 엄마는 안절부절 여성신문 90.8.3)

* 우리 집의 부모님의 관계, 부모님과 나와,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.

* 부모님의 노후, 나의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보자.

* 여성, 남성에게 결혼이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?(토론 보고서5)

12. 여성 노동 문제: 강의

13. 도전과 선택(토론 보고서 4)

8 # 조육라, " ", " ", 부산대학교

5 # 학생 보고서 II-1, II-2 , '성차별 관행도 약으로 써라' (여성신문 93.1.15)

9 # 정진, "술래잡기," 「또하나의 문화」9호, 1992.

* 여성학을 듣고나서의 감상(내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, 여성학에 못마땅한 점이 있다면, 기타 등등)

과제: 토론 보고서 4회(40점), 기말 보고서 : 여학생은 「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」(또 하나의 문화) 읽고 자기 분석 보고서, 남학생은 「 + 「새하곡」, 「필론의 돼지」(이문열의 「구로 아리랑」 중) 읽고 감상문 (50점)

안식처 : 친구같은 복음 (어머니랑 대화하다 어느 시점부터 아버지랑 대화. 폭력은 시사 토론, 어머니는 9시면 구두신다) (가형) (준대간 형아, 부모님라) 몇 십년을 살아도 지겹지 않은 사람 (노력 견제) * 서로 틀어져 살지만 편지하기. 구속: 귀가시간 (자유-자유 만끽), 남자: 하고 싶은 거 못한다 (274 차선책 택한 사람 X) 여자니까, 남자니까, 가깝고도 먼사이 (시대+남녀, 속이야기 안하고 농담 따먹기만. privacy 만 지켜짐 (화가 있고 뭘때, 부모님 성정하기 생각), 배우자 선택, 엄마랑 다 이야기 하다, 어느 순간 엄마가 나를 이해하게 아내라는 사실 목격. - 「지논」, 배신감. 대신 이야기 안한다 - 또 이야기 한다 - 동네 아줌마들이랑 얘기 거기 - 2인 비박이 아니다. 엄마가 이 두사람 싸움 때가 행복했다. 부론: 신같은 복음에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복음, (대학 얘기를 안한다 → 어차피 이해 못할 거니까 & 수업시간에 웃긴 얘기만)

여섯 사람이 같이 식사하기 힘든 상황 → 가족 회의 하자는 아버지 제안, 박내 리만도 알게 되고 싸움 때만 할 수 있던 내 이야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. → 꼭 대화를 가야 하나? (반찬 특정하고 씨름러 학교가는 문송만 한다)